

목양 칼럼

엔데믹(endemic) 시대의 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팬데믹(pandemic)이란 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염병이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났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유행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블라'라고 하면 아프리카를 생각하게 되었고, '사스'라고 하면 중국을 생각하게 되었지만, '코로나'라고 하면 세계 모든 국가가 앓고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2020년 초, 중반에 많은 노약자나 기저 질환을 가진 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전염률이나 사망률을 줄이는 데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변이를 계속하면서 치사율은 떨어졌지만 독감처럼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풍토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엔데믹(endemic)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사전 지식이 없어 많이 당황했습니다. 특히 교회가 봉쇄되었을 때 지금까지 교회라면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간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무너지면서 멘붕에 빠지게 된 적도 있습니다. 목회는 자연적으로 뉴욕 주에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감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 온라인 예배라는 시스템을 배운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도 고마운 마음으로 주일이면 정장을 하고 모니터 앞에서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메일이나 벤모로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교회로 가지고 오셔서 우체통에 넣고 교회 파킹장에서 기도하고 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눈물이나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얼마든지 제한 없이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점심 식사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교실이 비좁을 정도로 성도님들이 모여 기쁘게 식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토요일 선교회 기도회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모여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성경필사와 메시아 찬양제를 위한 연습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금년부터 단기선교가 다시 재개되면서 그 준비를 위해서도 기쁨으로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바라기는 광야의 연단을 통과한 우리 교회가 옴의 고백처럼 순금같은 교회와 성도로 변화되어 다시 한 번 비상하는 30주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요일-토요일)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셋째 금요일)	각 목장별로
제자훈련	각 동반자별로	각 동반자별로
새벽이슬회(청년)	오후 8:00 (금요일)	새벽이슬회실
주일학교	영아유치부 (5세 이하)	오전 11:00
	유년부 (1-6학년)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모임 오후 07:30 (금요일)
Silver Club	미정(T.B.A)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에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00-12:00	교육관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뉴욕에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Y.

VISION 2023 DISCIPLESHIP MARCH

뉴욕에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이민가정의 치료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주일예배

제 32권 5호 주후 2023년 1월 29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민목사	백에스라목사	김중훈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요 4:24)		
예배 기원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		
찬송	324장		
기도	강철순집사	김동환장로	정수영장로
성경봉독	잠(Pr.) 3:5-6		
찬양	할렐루야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인도하심의 확신 (김중훈목사)		
찬송	379장		
봉헌	630장		
예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감사/결단/축복)		
파송의말씀	인도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축도*	김중훈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예배 (F.M.A. 성경공부) 2월 1일 오후 8:30

- 기도: 심성실권사
- 말씀: 김중훈목사
- 다음주 기도: 김명숙권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손정민집사
- 2부: 이찬용장로
- 3부: 박경구장로

1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최길옥집사, 차상연집사
- 3부: 김영애권사, 길희정집사

예배 및 헌금 안내

- 모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수요예배:** F.M.A. 성경공부 '역대상'
- 교회 내 마스크 착용 및 성도간의 악수는 자물에 맡깁니다.
교회와 사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Address: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 **영아유치부 교사 수련회:** 1월 29일 (오늘) 오후 1시 30분, 유치부실
- **당회:** 1월 29일 (오늘) 식사 후, 친교실
- **권사중보기도회:** 2월 4일 (토), 본당 (시무, 협동, 은퇴, 명예 권사)
* 오후 7시 식사 모임 * 오후 8시 예배 및 기도회
- **제직회:** 2월 5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본당
* 안건: 백에스라 목사 부목사 청빙의 건
- **사업체 심방:** 사업체 심방을 원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부목사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를 위한 40 기도운동:**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창립 30주년 기념 메시아 찬양제 연습:** 점심 식사 후 연합으로
- **창립 30주년 성경필사:** 1월 31일까지 제출, 관련 문의는 교육위원장(김동환장로)에게
- **니카라과 선교:** 2023년 2월 23일 - 27일
*기도제목: 15,000 회집, 1000명 결신의 열매가 맺히도록
*문의: 윤희주장로 선교물품지원: 본당 뒷편 게시판 기재
-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
- 강단 꽃: 한기하장로&구속자권사 (결혼기념), 라용재집사&윤희정집사 (부성생일)
- 사랑의 식탁: 한기하장로&구속자권사 (결혼기념)
- **식사기도 담당자 및 식당봉사**
- 식사기도: 이번주: 정성원 장로 다음주: 한기하 장로
- 식당봉사: 이번주: 4마을 다음주: 5마을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 (11am Service).
Zoom QR Code for Sermon Translation



기도 응답의 확신(요 16:23, 24)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또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끌어 당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고급 과일 재배 방법)

1.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23절)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주기도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탕자가돌아 오기를 기다리시는 인내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편지와 같습니다. 수신자가 정확해야 바로 전달됩니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 하는 기도는 여러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 되고 있습니다.
2.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가?(23, 2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으로 죄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 뚫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3.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24절)
 - 1) 바빠서: 찰스 험멜은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에서 바쁜 세상에 빠져 살면서 중요한 일을 놓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 중에도 새벽에도, 밤에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지만 바쁘면 3시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 2) 피곤해서: 피곤해도 정해놓은 시간의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코고는 소리에 잠겨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중단하면 기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3) 세상 재미에 빠져서: 세상 재미에 빠져 기도 안하면 삼손처럼 눈이 빠질 날이 옵니다.
 - 4) 두려워서: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죽은 자도 살려 주셨습니다(막 5장). 두려운 환경을 보기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4. 기도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하면 좋습니다.
 - 1) 하나님 아버지께
 - 2) 감사 (패스워드 - 시 100:4)
 - 3) 회개 (사 59:1, 2; 시 66:18)
 - 4) 간구 (마 7:7, 8; 빌 4:6, 7)
 - 5)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론]
기도의 결과는 우리의 기쁨(24절)과 하나님께 영광(요 14:13)입니다(헤니 J. 크로스비).
“우리는 이삭처럼 과거에 선조들이 팠던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야합니다”(마틴 로이드 존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153기도’, ‘교회를 위한 40 기도’의 우물을 계속 파십시오.

행사예고

- 02/15(수) 4남선교회 헌신예배
- 02/21(화)까지 니카라과 단기선교팀 정기 준비모임 (매주 화요일 8시, 친교실)

방송설교

- KRB FM 87.7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